

## Preaching Leadership Lesson from the Marine Corps

저의 38번째 생일이 되기 직전, 11년 이상의 전임 목회 사역 후, 저는 미 해군의 현역 군목으로 임관했습니다. 이전에는 군 경험이 없었지만, 항상 군 복무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시점이 저와 제 가족에게 적기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30파운드의 체중을 감량한 후 기초 훈련을 완료하고 신입 군목을 위한 군사 학교에 다녔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패리스 아일랜드에 위치한 해병 훈련소에 배속되었습니다.

패리스 아일랜드에서 젊은 남녀들은 "기초 훈련"을 겪으며, 무더운 습도, 물리는 모래파리, 그리고 엄격한 훈련 교관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 교관들은 민간인을 "미국 해병대원"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전사로 변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섬의 주요 도로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현수막에는 자랑스럽게 "우리는 해병을 만든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패리스 아일랜드에서 저는 달리고, 행군하며, 해병대에서 "사이드 스트레들 홉"이라고 부르는 줄넘기 동작을 배웠습니다. 저는 천장을 "오버헤드", 바닥을 "데크", 그리고 벽을 "벌크헤드"라고 부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오른손은 경례를 위해 존재하며, 그 손으로 식료품 가방을 들고 상관과 마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해병대에서 "비타민 M"은 모트린(Motrin)을 뜻하며, 이는 해병들의 주요 식단 중 하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디엄 레그," "하이 레그," 그리고 해병대에서 가장 명예로운 이발인 "하이 앤 타이트"의 차이도 배웠습니다. 불평은 일종의 사랑의 언어이자 유대감을 형성하는 특별한 방식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리더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해병대에서 배운 몇 가지 리더십 교훈과 이를 목회 사역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공유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간단한 교훈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교훈은 해병대에서 흔히 사용하는 격언에서 비롯됩니다. 이 격언을 해병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고, 이를 목회 리더십에 적용하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격언 1: "모든 해병은 소총병이다."

모든 해병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해병은 전방 보병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을 애정 어린 표현으로 "그런트" 또는 "오 쓰리 일레븐(0311)"이라고 부릅니다. 보병 해병은 상상하는 그대로의 임무, 즉 사격하고 폭파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해병들은 통신, 항공 유지보수, 언어 전문가 등 다양한 지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모든 해병은 소총병입니다.

해병대는 돛을 사용하는 범선 시대에 선박 승무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종종 무질서한 승무원들로부터 해군 장교들을 보호했으며, 선박 간 전투 중에는 돛대 꼭대기의 "전투 마루"에 올라가 적을 향해 사격했습니다. 당시부터 해병들은 다양한 역할을 맡았지만, 무엇보다도 뛰어난 소총병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녔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해병은 정기적으로 소총 사격 실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격 능력은 미국 해병대원의 핵심 특징입니다.

교훈 1: "모든 설교자는 목자이다."

모든 해병이 본질적으로 소총병이라면, 모든 설교자는 본질적으로 목자여야 합니다. 당신이 담임목사, 부목사, 청소년 목사, 대학부 목사 등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서 당신은 동시에 목자입니다. 성경은 설교와 목자의 역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조차 교회의 목자와 목회자로 섬겼습니다. 설교자이자 선교사였던 바울은 단순히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한" "날마다의 염려"(고린도후서 11:28)를 겪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 기간 동안 그는 "그들 가운데 거하며," 공공장소와 가정에서 "유익한 것"을 가르쳤습니다(사도행전 20:18-20).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도 나누었다"고 상기시켰습니다(데살로니가 전서 2:8).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오순절에 설교하고(사도행전 2:14-41),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으며(사도행전 3:11-26), 산헤드린 앞에서 설교했습니다(사도행전 4:8-12; 5:29-32). 그러나 그는 자신을 "함께 있는 장로"라고 부르며, 모든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 떼를 치라"고 권했습니다(베드로전서 5:1-2). 어떤 장로들은 특별히 "설교와 가르침"에 전념하지만(디모데전서 5:17), 어

면 설교자도 목자로서의 사역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목회 초기 시절에 훌륭한 설교만으로 목자의 돌봄 없이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좋은 설교는 교회를 돌보는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정당성을 준다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지요! 목자가 양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돌보는 사역은 양들이 설교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게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웅변도 목자로서의 돌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설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6).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세심한 돌봄은 설교와 긴밀히 연결됩니다. 지혜로운 목회자는 두 가지 모두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해병이 소총병이라면, 모든 설교자는 반드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격언 2: “통증은 몸에서 약함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해병대 시설에서는 “통증은 약함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라고 쓰인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해병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병들에게, 해병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여야 합니다. 해병들은 소총, 박격포, 기관총으로 훈련하지만, 해병 자신이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해병들은 혼합 무술을 연마하며, 고된 손싸움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합니다. 또한 끊임없는 체력 훈련, 긴 행군(해병들은 이를 “험프”라고 부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의 고된 작업을 통해 고통을 견딥니다. 이는 일부러 자신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해병들은 고통이 더 큰 목표를 위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고통은 약함을 몰아내며, 고통을 견딘 해병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강해집니다. 만약 해병이 싸움을 계속하고, 막대한 고통과 육체적 고난을 겪으면서도 임무를 완수하려 한다면, 약함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대부분의 해병들은 이를 실현하려 합니다.

교훈 2: "통증은 설교자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해병들이 체력 단련에 전념하는 것처럼, 목사들도 영적 단련에 전념해야 합니다. 영적 단련은 불편함, 조롱, 고난, 시련, 심지어 박해를 견디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이는 구세주께서 이러한 시련을 사용하여 우리의 불순물을 태워 없애시는 도구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이사야 1:25; 말라기 3:2-3).

당신은 영적 단련을 위해 규칙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까? 해병들이 육체적 전사라면, 목사들은 영적 전사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웁니다(에베소서 6:12). 해병들이 세속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을 단련한다면, 목사인 당신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에베소서 6:13).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베소서 6:17)을 휘두르며, 성령의 손에서 가장 유용한 무기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에베소서 6:18-19).

전투 부대에 속한 해병이 고난을 외면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전쟁 훈련을 거부하고, 해병대가 자신에게 평화로운 삶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해병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묻게 될 것입니다. "해병대에 입대했을 때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전사들, 즉 목회자들 사이에서 비슷한 기대를 종종 봅니다. 너무 많은 목사들이 고된 일을 회피하고, 목회의 시련을 불평하며, 고난을 저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당신은 목사가 되었을 때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찰스 스펀전은 이렇게 통찰력 있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훌륭한 군인을 고난의 고지에서 길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평화와 편안함이나 건강과 부를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마태복음 16:24).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워서 안 됩니다. 당신은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난을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해병이 체력 단련에 전념하듯이, 모든 설교자는 영적 단련에 더욱 전념해야 합니다. 왜

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투는 영적 권세와 영원한 결과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격언 3: "변명 없습니다, 상관님."

해병들은 서로를 책임지게 합니다. 일을 해내거나 실패할 수는 있지만,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관이나 고참이 해병에게 계획이나 절차에 대해 묻는다면, 대답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실패했을 때는 오직 하나의 대답만이 인정받습니다. "변명 없습니다, 상관님."

패리스 아일랜드에 배치된 직후, 저는 대대 참모회의에 지각했습니다. 여기서 "지각했다"는 것은 회의 시작 5분 전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해병들은 회의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미 늦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회의는 벽에 걸린 시계가 특정 시간을 가리킬 때가 아니라, 지휘관이 도착했을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휘관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얼마나 빨리 왔든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장 문 앞에 급히 도착했는데, "늦었다"고 말했을 때는 이미 제 부대의 부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고 약간 불안한 모습으로, 전혀 기쁘지 않은 얼굴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군목! 왜 늦었습니까?" 이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변명 없습니다, 부대장님."

제가 이미 기대되는 답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몰랐고, 그녀의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교훈 3: "변명 없습니다, 주님."

해병이 자신의 실패에 대해 "변명 없습니다, 상관님"이라고 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자들은 자신의 목회 실패에 대해 더욱더 "변명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삶과 죽음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나를 사셨다는 진리는(베드로전서 1:18-19) 깊은 위로를 줍니다. 나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고린도전서 6:19-20). 그러나 이 진리는 또한 깊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을 대표하며, 그분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누가복음 17:10),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고린도전서 11:1).

더 나아가 야고보서 3:1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므로 당신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배우자를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교회의 성도에게 화를 냈을 때? 또는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강단에 섰을 때? 당신은 변명을 합니까? 책임을 회피하십니까? 이는 죄인인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에덴동산에서 주님이 아담에게 그의 죄에 대해 물으셨을 때, 아담은 하와를 탓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주님이 하와에게 물으셨을 때, 하와는 뱀을 탓하며 말했습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기독교 지도자로서 우리는 더 나은 본보기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써 주님과 그분의 백성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구원이 당신의 완전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완전함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명을 하거나 당신의 실패를 감추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당신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책임을 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의 약함에 대해 정직함으로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고, 당신의 죄에 대해 정직함으로 그분의 자비를 높입니다.

해병이 실패에 대해 “변명 없습니다, 상관님”이라고 대답한다면, 주님의 종인 우리는 더욱더 “변명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결론:

양떼를 돌보며, 고난을 성화의 기회로 삼고, 실패에 책임을 지십시오. 해병은 해병대를 떠날

수 있지만, 해병대는 해병을 떠나지 않습니다. 패리스 아일랜드를 떠난 이후 10년 동안 이러한 해병대의 리더십 교훈들은 제 목회 사역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교훈들을 목회에 적용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양떼가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러셀 세인트 존 목사는 미주리주 볼드윈에 위치한 트윈 오크스 장로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